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24하단13732 파산선고

2024하면13732 면책

채무자 최병선

채권자 유한회사 지앤케이파트너스

채권자 유한회사 지앤케이파트너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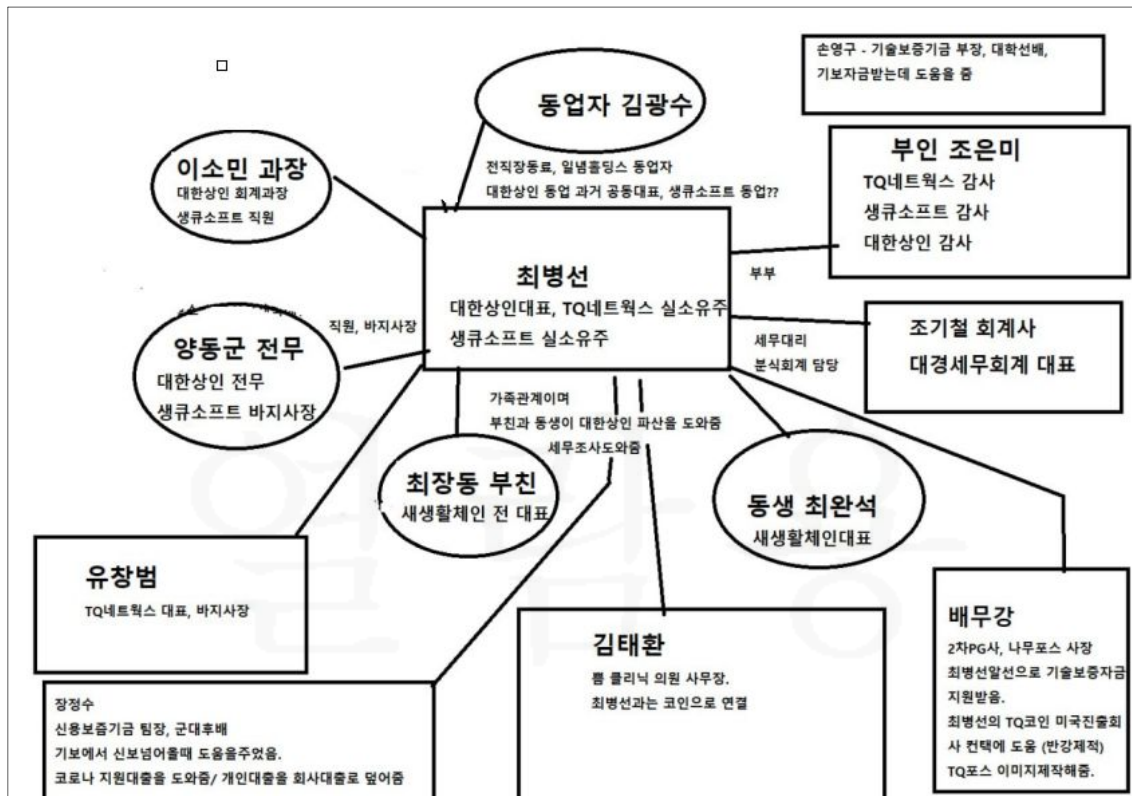
1. 채권자의 지위 및 채권액

채권자 지앤케이파트너스는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그 채권액은 1억 3천만 원(채권자목록 8번)입니다. 채권자의 대표이사는 박준한의 처로서, 박준한은 채권자 회사 운영을 조력해 왔습니다.

2. 채무자의 기본적인 사기파산 사실관계

가. 전체 개요

<첨부서류 1. 전체 조감도>



채무자는 평소에 회계사 조기철의 도움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채무자 대한상인에서 수억원의 회사금액을 횡령하여 왔습니다. 채무자는 분식회계를 통해 자신의 횡령을 숨기고 흑자인 회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기보와 신보로부터 30억 가량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간 채무자는 채무자의 대한상인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횡령하고, 대한상인의 주요 수입원인 생큐마트 운영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생큐소프트로 분사시키고, 코인사업에 투자 및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

자는 자신과 대한상인에 채무만 남겨놓고, 자금을 모두 생큐소프트, 코인사업체(티큐네트웍스 등)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이들 생큐소프트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양동군을 바지사장으로, 티큐네트웍스에는 자신의 처를 감사로 하고, 대한상인과 생큐소프트, 코인사업을 함께 해온 것입니다(이하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녹취록, 홈페이지, 사무실 위치 및 사진 참조).

나. 채무자의 대한상인의 주요 수입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대한상인(이하 대한상인이라 합니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대한상인은 2014. 2. 6. 채무자, 김광수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유통업을 주요 종목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주요 매출원은 ‘생큐마트닷컴(.com)’, ‘코사몰’ 등인데, 이들은 위와 같은 조합가입슈퍼(‘나들가게’라는 이름으로 전국 1만여 개 정도 됩니다) 등에 도소매 공급을 하면서 얻는 물품대금 등의 수익입니다(이하에서는 “생큐마트운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생큐마트와 박수몰을 운영하는 B2B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라고 소개가 될 정도로 생큐마트 운영이 주된 수입원입니다.¹⁾

채무자는 대한상인에서 김광수(공동대표)와 공동대표이고, 양동군(전무영업), 이소민(경리), 이기홍(이후에 TQ코인 사태에 연루)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직원들이 거쳐갔습니다.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실제수익은 채무자의 부친인 최장동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 최장동은 과거 한국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에서 2008 .2.12.부터 2003.3.까지 이사장(6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²⁾ 채무자는 최장동의 도움으로 생큐마트

1) 첨부자료 2

티큐코인과 대한상인 설명 블로그 <https://blog.naver.com/up-dongyoung/222729221059>

운영권과 이마트에브리데이 납품을 통해서 중간마진을 얻어 사업을 하였습니다. 최장동은 채무자를 위해서 그 명의로 회사를 세워주며, 마트납품을 통한 마진으로 영업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왔습니다.

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생큐소프트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주된 매출원인 생큐마트 운영권을 “생큐소프트”라는 회사에 이전시킨 후, 바지사장인 양동균(100%지분)을 내세워서 운영 중입니다. “생큐소프트”의 실제 운영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동생 최완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생큐소프트 법인등기부).

채무자는 파산 변호사비용을 월 500만 원씩 지출하고 있고, 위 비용 일체는 ‘생큐소프트’의 자금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들은 채무자 회사를 아예 형해화시키고 실제 알짜 수익원에 관해서는 다른 회사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코인사업

채무자는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생큐마트 운영권을 “생큐소프트”로 이전시키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코인사업으로 자금을 빼돌린 다음에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코인사업을 설계한 후에 티큐코인이라는 개념을 직접만들었고, 티

2) 첨부자료3.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홈페이지/조합연혁에서 최장동이 제6대 이사장으로 재직했음이 나와 있습니다(<https://www.kvc.or.kr/bbs/content.php?pageid=1010>).

큐네트웍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코인사업을 함께하면서 파산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제기한 파산신청은 자신의 수익원을 다른 곳에 이전시켜 놓고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채무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다음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파산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한 자금유용, 생큐소프트 주식회사와 티큐네트웍스를 통한 자금은닉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람용

3.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이유

가.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대출과 자금 횡령

(1) 채무자는 대한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매월 수백만원씩 받아갔고, 파산신청하기전에 대출기관에서 **총 30억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채무자는 사실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왔고, 이를 자랑스럽게 박준한에게 말한바 있습니다.

(2) 먼저 채무자 대한상인의 회계업무를 맡았던 조기철은 그간 채무자가 운영하던 대한상인이 적자로 운영되었으나, **재무재표를 조작하여 흑자로** 만들었고³⁾,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총 30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사기를 통해서 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이들 자금은 채무자 개인이 유용하거나 코인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래 채무자 대한상인의 회계사였던 조기철은 분식회계를 해왔음을 수차례 말하였습니다.

3) 2022년 9월 26일 박준한과 조기철 회계사의 녹취록 6면

<첨부서류 4-1. 2022. 9. 26.자 박준한과 조기철의 녹취록 6면>

조기철 :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어떤 그냥 ‘본인의 1차적인 앞가림이 되나?’ 나는 그런 의구심은 항상 있지. 근데 어떻게, 어떻게 또 계속 돈은 또 만들어 놓더라고. 뭐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지만.

박준한 : 그럼 수익이 계속 나는 회사는 사실은 아니죠? 쓰는 게 많아서.

조기철 : 그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박준한 : 예. 저는 사실 그런 낚새가 있어서,

조기철 : 적자지. 어마어마한 적자지. 아니, 어마어마한 적자지. 내가 그걸 맨날 재무제표를 막 뜯어서, 고쳐서 흑자 내느라고,

(2)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기보에서 10억 대출을 받았고, 대표이사는 개인대출도 2억 원 정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기보 대출을 받으면서 신보 대출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반대로 신보 대출을 먼저 받은 후에는 기보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동대표인 김광수를 통하여 기보의 손영구 부장(최병선의 대학선배)에게 접근하여 **기보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 이후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하나은행 관양동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18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최병선은 군대 후배인 장정수를 통하여 기보 대출금, 개인 대출금 등을 합하여 **신보로 대환(대출갈아타기)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변함없이 적자운영 되었으나, 채무자는 마치 흑자운영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하였습니

다.4)

<첨부서류 4-2. 2022년 9월 7일 채무자, 조기철, 박준한 통화 녹취록 12면>

최병선 : 야! 이거 판단은 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웃음)
1번? 자수한다? 자수했을 때,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에 따라서 그러면 뭐 패널티금이, 이게 세무조사에 그런 게 있
냐 이거지? 이거에 따라서, '그럼 패널티네?'

조기철 : 아, 없어, 없어.

최병선 : '어? 신보 돈도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조기철 : 아,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보에
전화해서,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는 않지.

최병선 : 아, 그래?

조기철 : 그럼!

※조기철 회계사는 그 동안 분식회계해서 손실을 숨겼던것을 세무조사때 자
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신보에서 분식회계로 대출
받은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정책자금의 풀리면서 파산 2년 전부터 최
근까지 대출액은 더욱 늘어난 상태인데, 채무자 회사 명의로만 대출 20억
원, 대표자 개인 대출로 6-1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의
대한상인은 단 한번도 매출이 흑자인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
은 거액의 대출은 분식회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 채무자의 대한상인 회사는 이처럼 회사의 상태를 기망하여 금융기관으

4) 2022. 9. 26.자 박준한과 회계사 조기철의 녹취록 6면

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받아 놓고는, 그 규모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커지자, 대출금 상환을 아예 파산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측 최병선은 박준한과의 사석 대화에서 “조만간 회사를 없앨 것이다. 법인은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4) 채무자는 분식회계를 위해서 회계사 조기철과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조기철은 분식회계로 인한 세무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녹취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⁵⁾ 녹취록을 보면, 채무자가 대한상인으로부터 약 13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고, 가지급금을 재고로 허위로 기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회계사 조기철은 가지급금을 재고로 정리해 왔다고 말합니다.

(5) 가지급금 이른바 횡령금액이 13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철회계사는 그동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4.6%로 매월 500씩으로 계산한다는 말합니다. 매월 500만원의 인정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금이 약 13억원으로 계산됩니다.⁶⁾ 채무자는 그동안 가지급금을 재고로 허위 기재했다고 하는데, 대한상인 재무재표 중 재고자산을 보면, 2022.12.31. 13억4천9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즉, 채무자는 그동안

5) 2022. 9. 7.자 녹취록: 채무자 측 최병선 및 회계사 조기철이 채무자 회사의 분식회계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실체는 큰 적가기업이나, 흑자기업으로 보이게끔 분식회계 중”이라고 언급했고,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식회계가 신보 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측 사기파산에 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6) 연 4.6%의 이자율로 월 500만원의 이자를 낸다면, 원금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 원금 × 이자율

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월 이자율은 $4.6\% \div 12 = 0.3833\%$ 입니다.

이자액이 월 500만원이라고 할 때, 이를 이용해 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 원금 × 월 이자율

500만원 = 원금 × 0.003833

원금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0.003833으로 나누면,

따라서 원금은 약 13억 42만 원입니다.

대한상인에서 가지급금은 13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재고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4-3 2022년 9월 7일 채무자, 조기철, 박준한 통화 녹취록 5면>

최병선 : 근데 이게 왜 나한테 뭐 이렇게 많지? 10몇억이 이게. 재고가 나한테 다 잡혀 있는 걸로 돼 있는 건가? 뭐지?

조기철 : 그러니까 재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손실 났던 거!

최병선 : 응, 응. 그렇지.

※가지급금 손실을 재고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녹취입니다.

<첨부서류4-3 2022년 9월 7일 채무자, 조기철, 박준한 통화 녹취록 10면>

조기철 : 가지급금이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뭐, 인정이자!

최병선 : 응.

조기철 : 가지급금 그 이자 있잖아? 4.6%!

최병선 : 응, 응.

조기철 : 이제 그 문제는 나오겠지.

최병선 : 그건 매년 넣었는데? 넣었다가 빼긴 했지만.

조기철 : 이제 그거는, 가지급금이 사실은 이제, 몇억인데, 몇억! 매년,

최병선 : 내가?

조기철 : 어?

최병선 :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기철 : 1억은 아닌 거 같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그 매년, 매년 나가 넣었다 뺐다 했던 게 그게 한, 한 5백만원 뭐 전후였던 것 같거든?

최병선 : 응, 응. 그러니까 1억 얼마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4.6%로 매월 5백만원을 이자로 인정해 왔다는 내용임.

<첨부서류5. 대한상인 신용분석보고서>

(주)대한상인 | 109-80-400/8

■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 구성비: 자산총계 대비 구성비)

계정과목	2020.12.31		2021.12.31		2022.12.3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3,347	89.4	4,114	79.5	4,426	77.0
당좌자산	2,212	59.1	2,685	51.9	3,077	53.5
(현금 및 현금등가물)	597	16.0	260	5.0	588	10.2
(매출채권, 공사/영업미수금)	1,400	37.4	1,873	36.2	1,823	31.7
재고자산	1,135	30.3	1,429	27.6	1,349	23.5
비유동자산	396	10.6	1,062	20.5	1,323	23.0

※ 인정이자 500으로 추산한 가지급금 액수와 재고자산은 13억4천9백만원으로 상당히 일치합니다.

(6) 채무자는 건강식품 투자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강식품 투자 금액은 총액이 **약 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6억원 중에 채무자의 대한상인 1억3천이고, 채무자 개인 자금 2억3천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자금도 동생 최완석으로부터 1억을 대여받은 것으로, **실제로 채무자는 1억3천만 투자한 것입니다.**⁷⁾

() 채무자는 그동안 가지급금으로 수억원을 채무자의 대한상인에서 최소 13억원 이상 횡령을 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여 왔습니다.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횡령외에 회사자금과 수익원을 다른 곳에 은닉하였습니다.

7) 첨부서류 13. 채권자의 고소장 참조

다. 채무자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생큐소프트'로 이전시켜서, 채무 부풀리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생큐마트닷컴' 운영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수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달 3000-4000만 원의 순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코로나 전에는 2000-3000만 원 정도였으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순수익이 늘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무자 회사의 사기파산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알짜 사업체인 생큐마트닷컴의 운영권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건외 양동군 명의로 100% 지분이 되어 있는 '생큐소프트'라는 회사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3) 그러나 위 '생큐소프트'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측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2024. 2. 19. 채무자는 대한상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자신의 직원이었던 양동군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생큐마트 운영권을 분리시키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첨부서류4-4. 2024년 2월 19일 채무자와 박준한의 통화 녹취록 52면>

최병선 : 그것도 지금 이제 가결산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동군이 이름으로 법인 하나 내가 또 내려고, 생큐마트만 떼려고, 내일 이제 내 동생이랑 이마트 여기 만나거든. 대한상인은 좀 무거우니까 일로 좀 떼자 해서 동군이 이름으로 해서 지금 법인 하나 내서, 생큐마트 수수료는 거기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애네 월급만 주고 나머지 지금 룬이 있잖아.

박준한 : 예, 예.

최병선 :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대한상인은 이자 때문에 이씨, 그래서 대한상인이랑 지금 분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려고 지금, 변호사 만나고 지금, 내가 그리고 기철이 잘랐다?

박준한 : 아, 이야기 대충은 들었어요, 형님.

※ 채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생큐마트 사업을 모두 생큐소프트로 넘기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회사의 주요매출사업에 대하여 직원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하여, 배임횡령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이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니 그 때 박준한에게 매월 100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 2024. 2. 27. 채무자는 양동군을 대표로 해서, 생큐소프트를 설립하였습니다.⁸⁾ 채무자는 2024. 5. 8. 채권자에게 “대한상인을 없애겠다.” 면서, 2차 PG와 코인을 해서 자신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한바도 있습니다.⁹⁾

8) 생큐소프트 등기부 설립일자 참조

9) 2024. 5. 8. 채무자, 박준한 통화 녹취록

<첨부서류4-5. 2024년 5월 8일 채무자와 박준한의 통화 녹취록 58면>

최병선 : 그거 뭐 법인 해도 의미 없어. 내가 대한상인 지금 없앨 거야. 의미 없어.

박준한 : 아니, 어차피 형 연대보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형도.

최병선 :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구조 만드느라고 약간 그레이 쪽, 2차 PG 가상계좌 이쪽 지금, 코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달 내 앞으로 그냥 내가 리셀 (...) 해서 받는 걸로 해놨거든.

박준한 : 그러면,

최병선 : 이제 하면 입금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지, 뭐. 그거 지금 통화하고 있었어. 한 두 달되면,

박준한 :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이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형? 진짜로.

최병선 : 말일 날 1,000씩 줄게, 말일 날.

(5) 실제 운영은 채무자는 2024. 7. 2. 최병선의 친동생인 최완석이 하고 있고, 채무자는 양동군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래 녹취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자는 양동군이 바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4-6. 2024년 7월 2일 채무자, 박준한 통화 녹취록 4면>

박준한 : 그래서 지금 양동군 회사로 돌아간 거고, 그쪽에서 돈 나오는 거고요? 어차피 형 뭇일 거 아니에요?

최병선 : 거기서 조합에다 내고, 아유! 거기 보면 되지, 내 거.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

박준한 : 그러면 양동군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뜬금없이.

최병선 : 아니, 바지야, 바지! 개는!

박준한 : 어차피 형이 사장인 거죠?

최병선 : 아니, 개가 바지라니까! 양동군이!

박준한 : 그러니까 양동군 바지인 거고, 실제 사장은 조합인 거예요, 그러면?


최병선 : 조합이지. 응. 다 넘어갔지. 원래 그게 완섭이가 내 동생이 조합의 상생위원장이라 그걸 가져가기로 한 거야. 근데 내 동생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조합에서, '그럼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얘기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럼 해라.' 넣어놨지.

※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아버지, 채무자 동생이 하고 있는 생큐마트 운영회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아버지 최장동은 6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생큐마트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최장동,채무자, 동생 최완석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¹⁰⁾



10)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화면

(3) 대한상인이 운영했던 “생큐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생큐마트 홈페이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생큐마트의 대표이사는 양동군으로 되어 있고, 생큐마트의 이메일 주소는 “thankqsoft@naver.com”이고, 생큐마트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5, 5층 5511호(대치동, 대동빌딩)”는 생큐소프트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합니다(첨부서류 6. 생큐마트 홈페이지 화면 등).



생큐마트은(는) 대량 구매 시 혜택을 드리는 도매전문 쇼핑몰입니다.

N

회원 로그인

트 가명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아이디 저장 ☒ 일반 회원 ☐ 관리자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회원가입](#)

고객센터

010-4403-2090

(평일 10:00~17:00)





FAX: 0303) 3444-9110



대한민국 대표 도매전문 쇼핑몰
생큐마트 회원이 되신다면 다양한 혜택이 평평!

- ✓ 쉽고 빠르게 어디서든 주문 가능혜택
- ✓ 삼성카드 결제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 ✓ 매일 가격행사를 통한 가격경쟁력 극대화

이렇게 이용하세요!

 <p>step1. 장바구니 담기</p> <p>원하시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p>	 <p>step3. 결제진행</p> <p>발급받으신 삼성카드를 결제를 진행해주세요.</p>	 <p>step4. 주문내역 체크</p> <p>최종확인된 주문내역을 체크해 주세요!</p>	 <p>step5. 정확배송</p> <p>매일 오후2시 이전 주문에 한하여 D+2 배송됩니다.</p>
---	--	--	--

약관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

대표이사 : 양동군 | 등록번호 : 609-86-28060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4-서울강남-02438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5, 5층 5511호(대치동, 대동빌딩)
TEL. 010-4403-2090 | FAX. 0303.3444.9110 | E-mail. thankqsoft@naver.com
Copyright © (주)생큐소프트. All rights reserved.

(4) 채무자 회사에 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채무자는 생큐마트와 관련하여 생큐소프트를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큐소프트의 감사 조은미는 최병선의 실제 부인이자 채무자 회사 대한상인의 사내이사였던 자입니다. 생큐소프트의 실제 운영은 최병선이 하고 있고, 최병선의 동생 최완섭과 위 조은미가 이를 조력하고 있고, 지분 명의자인 양동군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인	(주)생큐소프트	비고
설립일	2020.	2024. 2. 27.	생큐소프트를 파산신고 직전 설립
대표자	채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양동군	양동군은 대한상인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임. 실제 운영은 채무자와 채무자 동생 최완섭임.
이사	조은미		채무자의 처
감사		조은미	채무자의 처

(4) 관련 녹취록을 확인하면, 채무자는 생큐소프트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며, 인터파크 공급하는 계약을 위해 미팅을 한다면서, 본인이 직접 생큐소프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¹¹⁾

11) 2024년 5월 8일 채무자와 박준한의 통화 녹취록 60면

(5) 또한, 채무자 회사의 홈페이지인 과거 ‘대한상인.com’을 보더라도 우측에 ‘생큐소프트’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7. 대한상인 당시 홈페이지 사진>



※ 과거 대한상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현재 폐쇄). 홈페이지 하단에 생큐마트 배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6) 결국, 채무자 회사는 사실상 기존 모든 영업의 실체를 “생큐소프트”로 이전했던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회사인 대한상인에서 수입원이었던 생큐마트운영권을 생큐소프트로 이전시키고, 채무자 회사에 채무만 쌓이게 만들어 놓아 채무를 부풀리기 시작하여, 의도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열람용

다. 대한상인 자금에서 코인투자로 자금 은닉 정황

(1) 채무자는 2021.경부터 소위 ‘TQ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채무자는 박준한에게 ‘TQ코인’은 고맙다는 뜻의 영어 ‘생큐’(Thank you)의 약자이고, ‘생큐마트’와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채무자는 코인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식회계와 허위 직원급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코인사업을 할때 티큐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티큐네트워크라” 합니다)를 설립합니다. 티큐네트워크는 티큐프로토콜 운용사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회사 대한상인과 TQ네트워크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티큐네트워크에 감사는 채무자의 처 조은미입니다.¹²⁾ 채무자는 자신의 명함에 티큐네트워크 주소지를 사무실 주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2) 주식회사 티큐네트워크 등기부등본

<첨부서류8. 대한상인 사무실 전경 >



<첨부서류 9. 채무자의 명함>

	<p>위 주소는 티큐네트웍스로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합니다.</p>

(3) 채무자는 2022. 4. 30. 티큐네트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한다며 언론에 홍보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대한상인의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티큐코인의 사용과 결제에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티큐네트웍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마치 티큐네트웍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서, 티큐코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기망했습니다. 즉 티큐코인을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첨부서류 10. 2022.4.30. 대한상인, 땡큐프로토콜과 사업협약 보도>



※ 위 사진에 오른쪽이 채무자입니다.

(4) 채무자는 “멍냥이 비밀밥상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멍냥이비밀밥상’이란 회사는 채무자와 군대후배와 합자하여 만든 회사로서 사실상 채무자의 회사이다. 2022.5.9. “멍냥이비밀밥상”도 TQ코인과 협약식을 맺었다고 언론 보도를 내며, 코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¹³⁾¹⁴⁾

13) 2022년5월9일 땡큐프로토콜, 멍냥이 비밀밥상과 업무협약 보도

14) 이외에도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과 TQ코인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 조합의 회장 황영란은 채무자 측 최병선의 오랜 지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기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143>

(5) 채무자의 TQ코인사업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2. 8. 22. 티큐코인은 엘뱅크에 상장된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TQ코인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¹⁵⁾



15) <https://www.youtube.com/watch?v=MTWSiHoGZP0>

5. 결론

가. 위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46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사기파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진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의 파산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불법코인 사업, 각종 분식회계,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승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전체 개요 설명도
2. 티큐코인과 대한상인 설명 블로그
3.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종합 홈페이지 화면
- 4-1 2022. 9. 26.자 박준한과 회계사 조기철의 녹취록
- 4-2 2022년 9월 7일 채무자와 조기철 통화 녹취
- 4-3 2022년 9월 7일 채무자, 박준한, 조기철 통화 녹취록
- 4-4 2024년 2월 19일 채무자와 박준한의 통화 녹취록
- 4-5 2024년 5월 8일 채무자와 박준한의 통화 녹취록
- 4-6 2024년 7월 2일 채무자, 박준한 통화 녹취록
5. 대한상인 신용분석보고서
6. 생큐마트 홈페이지 화면
7. 대한상인 홈페이지 화면
8. 대한상인 사무실 화면
9. 채무자 명함 및 도로명 주소
10. 2022.4.30. 대한상인, 땡큐프로토콜과 사업협약 보도
11. 2022년5월9일 땡큐프로토콜, 멍냥이 비밀밥상과 업무협약 보도
12. 채무자의 고소장
13. 채권자 측이 작성한 고소장
14.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등본

열람용

2024. 12. 26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진

수원회생법원 귀중